

제주어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단원	제주어의 특징과 제주어 보존의 필요성			차시	1/17차시
일시 및 대상학년	고등학교 전학년	수준별	공통	장 소	각 학교별 활동 교실
수업목표	■ 제주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제주어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 실제의 구체적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진통문화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수업 단계	전개 과정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도입	도입	학습 동기 유발 수업안내 및 학습 목표 제시	■ 제주어로 인사를 한다. (예) ①무싱 것덜 홈이라? 팬안들 ③혼가 ■ 알아들었는지 손을 들게 해서 알아본다. ※제주어로 퀴즈를 내거나 제주어 속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예) 1. ‘말’[馬]을 제주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 물 2. 혼 배에 난 도새기도 알록달록혼다. ☞ 한 배(같은 배 →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돼지도 (무늬가) 알록달록하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 3. ②계난 내 ④ㅁ심을 아무도 몰라. ☞ 그러니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4. 비 오켜. ②장항(장 항아리)호고 ②물항(물 항아리) 더 끄라. ☞ 비 오겠다. 장독과 물독을 닫아라.	7분	http://culture.jeju.go.kr/ PPT 프레젠테이션

수업 단계	전개 과정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 간	학습자료 및 유의점
전개	전개		▣ 제주어의 특징 ☞ 해당 사이트 활용(http://culture.jeju.go.kr/) 제주의 언어는 타지방 방언과 달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①말이 짧고, ②대부분 줄임말로 되어있으며, ③어미에 ‘시’가 많이 붙고 ④조선시대 아래아(·)가 발음상에 남아 있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과거로부터 조상들의 삶에서 묻어온 제주어를 생활 속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어형들이 사용되어 제주도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통문화관 ‘사투리/속담’ 코너 http://culture.jeju.go.kr/contents/?mid=020501#3) ⑤ 고어형(古語形)이 많이 남아 있다. (예) ㄹ실>ㄹ술>ㄹ을(ㄹ을)>가을 ㄹ실/ㄹ술>ㄹ술>ㄹ을(ㄹ을)>마을 믄지다>만지다 믄롸감>마른감(→곶감) 뽕다>뽕다 빨리>빨리 ▣ 제주어 보존의 필요성 ①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② 국어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③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36 분	PPT 프레젠테이션
정리	형성평가 (4분) 정리 (3분)	형성평가 차시예고 및 과제 부여	1. 제주어의 특징을 말해 보자. 2. 제주어 보존의 필요성을 말해 보자. ▣ 차시 예고 ▣ 과제: 다음 차시에 학습할 농수산업 관련 제주어들을 조사해 오기.	7분	PPT 프레젠테이션

■ 학습참고 자료

1. 제주어(제주방언)

추자군도(楸子群島)를 제외한 제주도와 인근 섬에서 사용되는 방언.

제주방언은 9개의 단모음(i, e, ε, i, ə, a, u, o)을 가지나 젊은 층에서는 [e]와 [ɛ]를 [E]로, [ɔ]를 [a] 또는 [o]로 발음함으로써 7개의 단모음체계를 가진다. 장년층에서 아직 상당한 세력으로 남아 있는 ‘으’음은 ‘ㅏ의 후고음’(後高音)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ㄱ레(멧돌), ㄱ을(가을), ㄱ물다(가물다) 등의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 또 ‘으’는 모음체계에서 특이한 이중모음으로 장년층에서 아직 사용되지만(예를 들면 으라이(여럿), 으섯[六]) 어의구분의 기능은 별로 없다.

극용체계상으로는 근래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 주격조사 ‘-레’,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처격조사 ‘-테레, -데레, -레’가 독특하며, 존대법의 특징으로는 어미에 접미되는 첨사 ‘마쑈, 예’ 등을 들 수 있다(예를 들면 ‘혼저 읍서예’(어서 오십시오)).

제주방언의 어휘는 조수간만에 관한 명칭, 바람의 명칭, 농기구의 명칭, 우마(牛馬)의 명칭에서 특이성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랜 해양생활에서 바람과 조수 등이 그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명칭을 붙인 데서 비롯된 듯하며, 육지와 격리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어휘들을 개발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형용사는 ‘-ᄃ-’를 첨가시킨 경우가 많고(예를 들면 퍼렁ᄃ다[靑], 벌정ᄃ다[赤]), 부사는 ‘-jæŋ’, ‘-njæŋ’등의 접사를 붙인 것들이 많다(예를 들면 ‘이영’(이렇게), ‘하영’(많이)).

2. 신문 기사

‘제주 방언’ 문화 아이콘 부상

[부산일보 2006-10-04 11:51]

중세 우리말 흔적 역력... 연구·보존 가치 인정

‘도새기’는 돼지를 뜻하는 제주 방언. 제주도는 최근 ‘도새기’의 상표권 등록에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는 도새기라는 상표를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제주 방언은 이제 알아듣기 힘든 말에서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글날을 맞아 ‘KBS 스페셜’이 제주어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오는 8일 오후 8시에 KBS 1TV에서 방송되는 한글날 기획 ‘바람의 말, 제주어’에서는 역사의 기록이자 사라진 한국어를 확인할 수 있는 보물인 제주어를 소개한다. ‘언어는 문화’라는 인식 하에 제주어 보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

제주는 탐라국으로 불리던 고대에는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가졌지만 고려시대 이후 육지와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4·3항쟁을 겪으면서 육지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지역의 방언과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대립되는 특징도 많아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제주어에는 한글이 창제됐던 당시의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에서 볼 수 있는 중세국어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아래아, 반치음, 여린 이응 등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 것. 제작진이 방문한 한 고등학교에서 평상시 표준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청산별곡’ 등 중세 문학작품을 별 어려움 없이 해석해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어를 지키려는 노력도 소개한다. 국립국어원과 민속박물관은 제주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들어간 상태. 제주도에서 개최된 백일장에서는 방언 부문이 생겼고 1주일에 1시간씩 제주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 김종우 기자(kjongwoo@busanilbo.com)

-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부산일보 창간 60년)
- Copyrights © 부산일보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